혜향 스님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백장 스님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고 있다.

일하며 드는 화두 '꿀맛'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혜향 스님 (구미 문수사 주지)

때이른 장마를 시샘이라도 하듯 불쑥 찾아온 무더위가 한창인 6월 19일. 100호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부락에 도착하자 산 중턱에 어렴풋이 문수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의 '백장 스님'이라고 불리는 혜향 스님이 선농일치를 실천하는 도량이 저기구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마을을 지나자 정겹게만 느껴지는 오솔길이 나타난다. 주변에는 벼포기가 실팍한 논과 사과밭이 즐비하고 아카시아 향이 가득했다. 경내에 도착하자 우리를 반기는 것은 스님이 아닌 바로 꿀벌들. 혜향 스님이 아들같이 키우고 있는 벌들이 산사를 찾아온 손님을 아는지 반갑게 인사를 한다. 경내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들을 오가며 부지런히 꿀을 따고 있는 벌이 스님의 하루 일상을 말하는 것 같았다.

혜향 스님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후반 강원도 영월 법흥사에서 수행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사하촌 주민에게 양봉 기술을 배웠다. 1962년 만행으로 지금의 문수사에 잠시 머물렀을때 신곡리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현실을 그냥 보

> **양봉·과수원 일구며 항상 '이뭣고'**
> **주민 대부분이 신도, 애경사 직접 챙겨**
> **"시줏물 귀한줄 알아야"…자활 강조**

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스님은 직접 뒷산을 일구어 밭을 만들었고 주민들을 설득해 양봉을 시작했다. 선방에 앉아 참선을 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중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더불어 사는 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혜향 스님은 중국의 백장회해(百丈懷海, 769~814) 스님이 가르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도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법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다.

"주민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한 평생의 살림살이가 됐어요. 몸뚱아리 놀려서 뭐 하겠어요,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게 분명한데…. 가부좌를 틀고 화두를 드는 일이나 농사일을 하며 화두를 드는 것이 다를 바가 없어요. 모두 마음의 문제니깐."

혜향 스님의 일과는 여느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새벽 3시에 일어나 상좌 월담 스님과 함께 예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불과 함께 잠시 참선을 한 이후 스님은 바로 양봉통을 찾아가 꿀벌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아침 공양을 하고나면 과수원에 가서 사과나무가 잘 크고 있는지 살핀다. 경내 한 모퉁이에 텃밭을 일구어 상추, 고추 등 먹을거리를 재배하며 하루를 보낸다. 먹물옷을 입었지만 장갑을 끼고 한손에는 호미를 들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농사꾼이다. 스님은 경을 보거나 염불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이뭣고' 화두를 든다. 젊은 시절 일을 하다가 화두를 놓치고 밤에 자려고 하면 큰스님들이 '오늘 하루도 헛살았구나' 하는 말이 생생했다는 혜향 스님. 몸이 피곤해 육체의 한계를 느낄때일수록 화두가 더 성성하게 살아있다고 말한다. 최근 당뇨 합병증으로 심장의 혈관이 막혀 여섯번이나 대수술을 했지만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하루도 농사일을 거르는 법이 없다.

"육체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너무 편안하니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잠시 쉴 때 번쩍 빛나는 화두의 참맛이 농사일을 수행으로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혜향 스님은 가끔 시간을 내 신곡리 마을 경로당을 찾는다. 같이 농사일을 하는 '도반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스님은 주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간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곤 한다.

신곡리 주민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스님을 마을의 어른으로 생각한다. 스님이 가르쳐준 양봉을 통해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다. 스님은 지금도 마을 행사나 주민들의 애경사를 직접 챙긴다. 또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주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이에 보답하듯 주민들도 부처님오신날 등 사찰에 큰 행사가 있으면 내집 일처럼 돕는다. 신곡리 마을 한 가운데 커다란 교회가 있지만 100호 가운데 문수사 신도가 97호에 이른다고 하니 신곡리 주민들과 스님간의 각별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혜향 스님은 요즘 요사채 불사를 마무리 하느라 분주하다. 지난 겨울 농한기를 틈타 시작한 불사가 이제야 마무리 공사를 남겨두고 있다. 불사가 다소 늦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예산 부족. 다른 사찰에서는 신도들의 모연을 통해 불사를 진행하지만 문수사는 오지라 스님이 직접 농사일과 양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불사를 진행해왔다.

혜향 스님은 스님들도 자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생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중생구제는 모두 '공염불'이라는 것. 선방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하루 한 두 시간 정도는 노동을 통해 진정한 땀의 의미를 알아야 중생의 아픔도 알 수 있고 깨달음의 길에도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평생 노동을 하며 수행해 왔지만 이제야 부처님의 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빨리 깨치겠다고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고목나무처럼 한자리만 지키며 열심히 정진하다보면 깨달음은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열심히 정진하세요."

글=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40년 넘는 세월 농사지으며 수행

혜향 스님은 | 1937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혜향 스님은 15세에 합천 해인사로 출가했다. 16세에 상주 남장사에서 동산 스님의 6번째 상좌인 화엄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부산 범어사 강원에서 5년간 수학했다. 이후 직지사 강원, 조계사 강원, 영월 법흥사 등에서 경학과 참선 수행을 병행했다. 1962년 구미 문수사에 주석하면서 현재까지 '농사꾼'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행은 자기와의 철저한 약속'

혜향 스님의 가르침

몸에 대한 지나친 애착 버려야
매일 참선하면 인생 달라지고
자신의 삶 지배하는 주인공 돼

상좌 월담 스님과 담소를 나누는 혜향 스님(왼쪽).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발심했을 때가 곧 깨달음을 이룬 때라는 말입니다. 그 만큼 초발심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출가한 사미가 지켜야 할 덕목을 적은 경전이 바로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입니다. 신라 원효 스님이 지은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과 고려 중기 지눌 스님이 지은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고려 후기 야운(野雲)이 지은 <자경문(自警文)>을 하나로 역은 책이지요. 오늘은 그 가운데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출가 수행자를 위해 지은 내용이지만 재가 수행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는 유명한 '화택(火宅)의 비유'가 나옵니다. 늙은 부자가 어느날 밖에 나갔다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보니 아들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 불타고 있는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자가 아무리 나오라고 소리쳐도 아들들은 듣지 않았고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자는 아들에게 온갖 보물을 주겠다고 하여 집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여기서 불타는 집, 화택(火宅)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우비고뇌(憂悲苦惱)로 점철된 세상을 뜻합니다.

다시말하면 중생이 사는 세상이란 불타고 있는 집이나 마찬가지며 번뇌 망상이 자신을 파멸시키리라는 지엄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이 시시각각 다가옴을 모르는채 놀이에 몰두하는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은 평생동안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과 온갖 욕심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 몸의 욕심과 쾌락을 버리면 부처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몸뚱이는 허망한 것이고 곧 무너질 것이므로 아무리 아끼고 보호해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세속에 대한 미련을 끊고 계행을 훌저히 지켜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될 목표를 세워 정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도를 닦는 수행자가 호화스러운 비단옷을 입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애지중지 보살피더라도 이 몸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며 비단옷을 입어 보호하더라도 이 목숨은 반드시 마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흙 · 물 · 불 · 바람의 사대(四大)로 구성된 몸은 곧 흩어지므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벌써 저녁이 되고 내일이면 또 다른 해가 뜹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흘러 어느덧 한달이 되며 한달이 지나서 어느덧 한해가 되고 한해 한해가 바뀌어서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세상의 향락 뒤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고 한번 참으면 오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찌 도를 닦는데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망가진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사람도 늙으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수행을 해 보니 늙으면 기력이 쇠해서 마음먹은 만큼 몸이 따라 주지 않더군요.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일념으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재가자의 경우도 수행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활 자체가 곧 수행입니다. 저도 한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한순간도 '이뭣고'를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화두가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옛날 큰스님들이 편하면 공부가 안 된다고 했듯이 일상 생활이 바로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있기에 화두를 더 성성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유명한 법어를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세상사를 많이 알고 부처님 법을 많이 배웠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 합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발심을 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정해 놓고 참선을 해 보십시오. 보통 내가 6시에 기상한다면 내일부터는 5시 50분에 기상하세요. 10분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10분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늘어난 10분동안 매일 참선을 해 보세요. 인생전체를 놓고 보았을때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부터 5분간 참선을 한다고 칩시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저녁에 조금 일찍 잠을 청해야 하고 곡차도 덜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 속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결국에는 그 작은 변화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정진을 계속해 가다보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배움이 조금 모자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쥬리반트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도 어리석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자 부처님께서 너는 쓸고 닦는 일만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쥬리반트카를 손가락질 했지만 매일 쓸고 닦던 어느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행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몇 생을 걸고 하는 것이지 이 한생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매일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반복을 통해서 몸에 습을 들이고 평생을 정진해 나간다면 누구나 성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수행정진 하세요.

정리=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1>

가장 빨리 행복해질 수 있는 법

어느 해 봄날 모처럼 큰맘을 먹었습니다. 베란다에서 꽃을 한번 키워보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거푸 실패하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물을 줘야 하는 꽃이 있는가 하면 여름 내내 거의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꽃이 있고, 직사광선 아래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는 녀석이 있기도 하고 그늘에 두어야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녀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화분 하나도 죽이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백 원, 1천 원짜리의 비싸지 않은 꽃을 날마다 사들여서 베란다에 가득 채워 넣고 여름 내내 화분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 정작 여름 내내 피어난 꽃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분 하나에 막 꽃봉오리가 맺히면 빨리 꽃 피우기를 기다리며 조바심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봉오리가 화려하게 만개하면 어느 사이 나는 그 옆의 화분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녀석은 언제나 꽃을 피우려나?'

그 화분이 꽃을 피우기가 무섭게 내 시선은 또 다른 화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니, 다른 꽃들은 다 피었는데 이 화분은 뭐가 잘못되었나?'

예쁜 꽃을 보고 싶다던 나의 바람은 일찌감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꽃 한 송이가 피는 순간 그 꽃의 자태를 감상하지 못하고 서둘러 그 옆의 꽃가지를 바라보며 '이 꽃은 언제 필까?'라고 조바심을 내기만 하였으니 결국 나는 내 소망이 이루어졌는데도 여름이 다 가도록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99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소유한 단 한 마리의 소를 보면서 1백 마리를 채우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한다고 하지요? 그리하여 기필코 그것을 빼앗아서 1백 마리를 채워야 성이 찹니다. 하지만 1백 마리를 채우는 순간 150마리, 2백 마리…하는 식으로 욕구는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그 부자는 죽을 때까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삶은 불행하다고 느끼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름 내내 베란다에서 꽃을 기다리던 내가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행복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 것이다'라며 기대치를 안고 있는 사람보다 지금 이 순간 '이제 됐다.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생각을 내리는 사람이 지금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야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살림살이는 대대로 물려서 사용해도 못다 쓸 판인데 새록새록 쏟아지는 신제품들은 여지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하다못해 술자리에서도 "됐습니다. 딱 한 잔으로 족합니다"라며 정중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족하다' 쉽지 않은 일
소욕지족 못하면 천당서도 불행
행복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소욕지족(少欲知足)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아라.'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성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욕심을 줄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심을 줄이지 않고 만족할 줄 모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하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워지내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살아도 성에 차지 못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기 때문"입니다(유교경).

천당에 살아도 성에 차지 않는다면 결국 행복의 여부는 바깥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욕심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하는 일이 많기에 괴로움 또한 많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바라는 것이 없기에 이런 재앙이 없다. 그러므로 괴롭지 않으려거든 먼저 욕심이 적은 사람이 되도록 수양해야 한다. 욕심이 적은 것은 온갖 공덕을 낳고,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아첨하지 않아도 되고 감각기관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평탄하여 근심과 공포가 없으며 무슨 일을 하건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만 열반은 약속되어 있다."(유교경)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보다 더 분명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이제 됐다.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마음먹는 일이라고 <유교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스님만의 특유한 자연건강 비법과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과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 나십시요.

난치병 불치병 등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혜광(慧廣)스님을 아십니까?

KBS, MBC, 연합불교방송 등 방송매체와 35회 이상
언론에 보도된 **혜광스님 (필명 李海堂)**

성공한 사업가(전직 무역회사 회장, 수출탑 수상), 자연건강 연구가(자연건강 1급 지도사, 자연건강 연구 15년), 소설가, 투병생활 9년, 불가에 귀의(1989년,1996년 법사계 전법), 외국(티벳,태국)사원 자연건강 비법 전수, 한국 인물사(대한민국 역사편찬위 발행 1990)수록.

KBS 방영 - 이제는 중생 구제다 -

KBS의 "혜광스님의 자연건강 행복한 삶" 프로(2005.7.10 방영)에 특별 출연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자 70노구를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투병생활 장소이자 바닷가 자신의 별장에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약사암(藥師庵)을 창건하다

손꼽히는 한려수도
관광과 방생지

거제도 바닷가 황토굴에서 새 생명을!
- 몸속에 가득 채워진 독소 (오염된 물, 공기, 중금속 오염, 약품과용, 가공식품) 을천연 황토동굴에서 제거 해야 한다 -
스님 자신이 투병생활에서 얻은 결론이다.

(스님과 친견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 1-3 약 사 암
(동부면 면사무소에서 1Km 거리, 면사무소 - 오송리 중간 우측)
전화 : 055)632-2483 / 휴대폰 : 018-591-1322

• 인터넷 검색(혜광스님 관련)
http://www.cafe.daum.net/yaksaam
http://www.cafe.daum.net/Osongwon
http://www.cafe.naver.com/leehaedang
E-mail: lom1209@hanmail.net

元 · 氣 · 回 · 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